

목록

2008.12_1	1
2008.12_2	2
2008.12_3	3
2008.12_4	4
2008.12_5	5
2008.12_6	6
2008.12_7	7
2008.12_8	8
2008.12_9	9
2008.12_10	10
2008.12_11	11
2008.12_12	12
2008.12_13	13
2008.12_14	14
2008.12_15	15
2008.12_16	16
2008.12_17	17
2008.12_18	18
2008.12_19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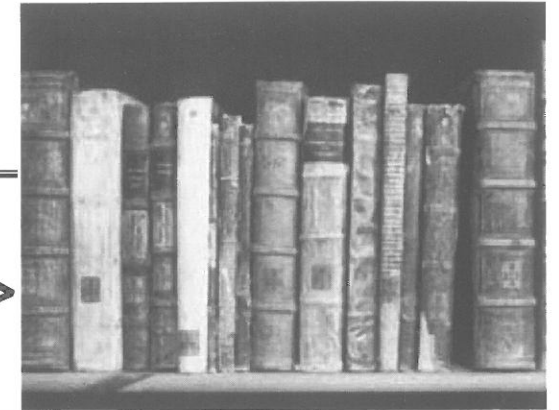
그림비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학회지

- I. 연마장양의 문헌정보
- II. 지정인의 모든 것
- III. 2008 하반기 사회이슈
- IV. 대학생의 건강한 문화탐험
- V. 삶의 쉼터



<내림비치>



‘그림비’란 순우리말로 젊은이, 청년을 뜻 합니다.

I. 연마장양 (鍊磨長養)의 문헌정보

1. 문헌정보의 확장, 도서관호텔
2. 해사하신 조인숙 교수님과 인터뷰
3. 지식정보학부 학생들, 답사 다녀오다

II. 지정인의 모든 것

1. 한성대학교대학원 : 지정학부 출신의 재발견
2. 제25대 학생회 DDC 마무리의 향연
3. 재학생이여 끼를 펼쳐라
4. 편집부 MT

III. 2008 하반기 사회이슈

1. 멜라닌파동 그 끝은?
2. 한국인들의 잇따른 자살
3. 등록금 천만원 시대 대처법
4. 보이지 않는 공개살인 ‘인터넷 마녀사냥’

IV. 대학생의 건강한 문화 탐험

1. 세계의 크리스마스 풍습
2. 한국문화의 집합소 인사동에 다녀오다
3. 드라마를 통해 본 위인들
4. 하늘과 맞닿은 바람의 나라, 몽골
5. 달과 6펜스

V. 삶의 쉼터

1. 올겨울 유행패션

VI. 마무리 그리고 시작

- 편집후기

문헌정보의 확장, 도서관 호텔(Library Hotel)

07 허지영

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서관을 '책을 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금 딱딱하고 엄숙한 공간' 정도로 생각할 것이며, 또 대부분의 도서관이 이런 이미지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편견을 뒤엎고, 어느 호텔에서는 공부를 위해 도서관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먹고 잘 수 있다는 획기적인 발상을 내놓았다. 맨하튼의 번화가인 매디슨 에비뉴 299번지에 있는 도서관 호텔(Library Hotel)이 그곳이다.

도서관을 테마로 한 레스토랑을 시작으로 호텔까지, 사회 안에서는 도서관 붐이 일고 있다. 맨하튼에 위치하고 있는 이 도서관호텔 또한 60개의 객실을 가진 그리 크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이 호텔을 만든 이들은 도서관을 염두에 두고 호텔을 마치 도서관처럼 꾸몄고, 그 결과 당돌하고 획기적이고 특색 있는 호텔이 되었다.

이 호텔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는 뉴욕 공공 도서관(The New York Public Library)과 모르간 도서관(The Morgan Library & Museum)이 자리 잡고 있다. 관광에서 숙식까지, 도서관관광을 온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코스가 아닌가 싶다.

도서관 호텔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입구에서부터 도서관에 온 듯 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로비를 장식하고 있는 마호가니 책장과 그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책, 그리고 프런트 데스크 뒤에 있는 카드 목록함 때문에 이곳은 호텔의 로비가 아니라 오히려 도서관의 대출대와 비슷하게 보인다.

그런데 이 도서관 호텔을 더욱 특색있게 만드는 것은 각 층에 있는 객실들이다. 3층에서 12층까지 각 층마다 6개씩 있는 객실은 방마다 듀이 십진 분류법에 따라 방 호수가 매겨져 있고 각각의 방에는 그 번호에 해당하는 주제의 책이 비치되어 있다. 예를 들면 3층에 있는 객실은 듀이 십진 분류법의 300 단 위에 해당하는 사회과학과 관련된 책이 비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3층 사회과학에서 시작하여 9층에 있는 역사(900)까지 이어지고 10층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총류(000), 11층은 철학(100), 12층은 종교(200) 분야의 책이 구비되어 있다. 층수와 십진분류법을 결합한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느꼈다. 아마도 호텔기획자가 도서관계의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서가에 둘러싸인 객실 뿐 만 아니라 호텔의 2층에는 열람실도 존재한다. 이용자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 커피, 카푸치노, 각 종 차 그리고 쿠키와 과일이 하루 종일 제공된다. 그리고 호텔의 14 층에는 더욱 안락한 분위기로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벽난로와 안락의자가 있는 "작가의 서재(Writer's Den)"와 햇볕을 쬐면서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의 정원(Poetry Garden)"도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저녁 시간이 되면 책갈피(Bookmark) 라는 이름의 바가 운영이 되는데 가벼운 칵테일과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 변한다. 이곳에서는 "위대한 개츠비" 나 "카포테" 등 책이나 문학과 관련된 이름의 칵테일 또한 준비되고 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책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종종 우리는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모험을 기대한다.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흥분하고 짜릿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때로는 이처럼 조용하게 책을 읽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매스미디어와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책과 동화되어 깊은 생각에 빠질 수 있는 혹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편안한 공간을 말이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면, 휴식과 지혜를 동시에 제공받길 원한다면, 바로 이곳이 그 최적의 장소다.



해사하신 조인숙 교수님의 인터뷰



07 황인영

지식정보학부의 굵고 해사하신 조인숙 교수님. 그분에 대해 좀 더 알고, 교수님에 대한 그동안의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조인숙 교수님과 인터뷰 자리를 가졌습니다. 디지털정보시스템 운영과 원문 데이터베이스 평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학부생들에게는 지식정보사회론, 기록관리시스템론, 전자도서관 구축론, 정보센터론과 같은 주옥같은 강의를 통해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인터뷰를 하러 찾아뵈었을 때에도 교수님 특유의 친절미소로 환영해주셨는데, 그 온화하신 성품을 충분히 엿 볼 수 있었습니다.

Q1. 교수님 1년간 연구년에 다녀오신 것에 대해 이야기 해 주세요.

미국에서는 서부 사립대학 도서관 탐방을 했어요. 물론 캐나다의 로키산맥이나 샌프란시스코 여행도 다녀왔고요. 미국 동부 보스턴에서는 대학도서관이나(하버드도서관과 그 주변은 윤충남 교수님이 가이드 해주셨다고^^) 공공도서관, 뉴욕박물관, 모건Library 답사를 다녀왔어요.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의 도서관 대부분이 아카이브와 뮤지엄, 갤러리의 복합 형태였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공공도서관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 가야되지 않나 하고 깊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또 일본에서는 일본도서관대회에도 참여했고,

국회도서관이나 여러 대학도서관, 국립정보과학연구소의 운영방식을 보고 왔습니다. 일본의 대학도서관들은 카드목록함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 전통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려는 도서관환경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급격히 변하는 가치관에 대해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어요.



Q2. 대한민국도 점점 복지사회로 이향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도서관의 위치와 가치도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서관이라는 것이 사회적기구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관종 별로 다양하지만, 모든 도서관들이 그에 속해있는 모기관의 목적에 맞는 각각의 임무를 잘 해야 해요. 또한 도서관 사서들도 의무감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하여 참고봉사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한국의 도서관이 성공적인가를 따져본다면, 도서관학이 대학에 처음 자리 잡았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거예요. 1957년부터 어언 50년 동안에 이루어진 결과를 본다면 그동안 도서관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에 따라 도서관의 사회적 지위도 상승되고 있고, 더 많은 국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앞으로 도서관이 '매일 밥 먹는 것' 처럼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도서관 내, 외부직원이나 사서, 도서관정책집행자, 도서관계 인사, 국가와 이용자가 노력해야 해요.

Q3.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을 배우고 있는 학우들에게 사서가 되려면 필요한 자질을 알려주세요.

한마디로 성실성과 의욕이 넘칠 정도로 매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사람을 좋아하는 성품, 꾸준한 지적호기심과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해요. 지적욕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도서관 모기관의 지식을 잘 알고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해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총체적인 공부 뿐 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분야의 공부를 스스로 먼저 찾아서 해야 돼요. 그것이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방송계열 쪽이라든지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공부해야 전문가(주제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어요.

장서배열과 같은 단순하고 기술적인 서비스보다는 책의 내용, 주제에 대해 깊게 아는 사서가 되면 본인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결국 지적서비스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사서로서는 최고가 아닌가 해요.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용자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왕이 되어야 돼요. 이용자 없는 도서관은 상상할 수가 없죠. 이용자와 접하고 그들과 대화하려면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죠? 문헌정보학 학생들 중에 소극적인 학생들이 많은데 나중에는 그러한 성품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만은 않아요. 적극적이고 활달하며 대인관계가 원활한 사람이 도서관 사서나 아키비스트가 돼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성품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교라는 것이 좋은 연습장이 돼요. 선, 후배와 동기를 만나면서 대화하고 부딪히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사회생활훈련이 될 거예요. 또한 개방된 사고를 가지고 변화를 받아드리고 끊임없이 어떠한 것에 대해 연구하고 발전시키려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만하면 훌륭한 사서가 될 수 있어요.

Q4. 교수님 너무 단아하시고 고우신데 비결 좀 알려주세요.^^

비결은 없고 밝게 살아요. 본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데 대학생 시절에 학교에서 신문사활동을 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성격도 활달해지고 밝아진 것 같아요.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생각이 행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끝은 불을 보는 것 같기에 밝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그럼 세상이 따뜻해질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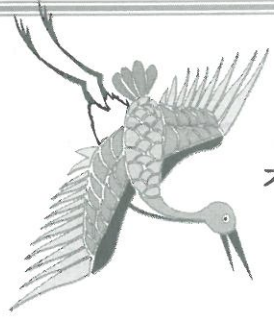
Q5. 학생들에게 배움을 가르쳐주시면서 뿌듯한 점이나 학생들이 대견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예요?

교수라는 직업을 하는 것이 참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1학년 때 철딱서니 없고 짓궂은 친구들을 보고 '저 친구가 사회 나가서 제대로 활동할까' 하는 걱정을 하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 군대를 다녀오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 3학년쯤 되어서 철드는 것 보면 참 보람을 느껴요. 말썽부리던 친구들이 어느새 장성하여 사회 나가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부뚱하죠. '교수, 가르치는 사람' 으로서의 내세울 건 없지만 함께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 친구들이 잘 살아가는 걸 보면 고마움을 느껴요.



◀ 승천 기적의 도서관에서
조인숙교수님

인터뷰에 친히 응해주신 조인숙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도 캠퍼스 내에서 계속 교수님의 밝고 아름다우신 미소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조인숙 교수님의 심도있는 알찬 강의를 수강할 생각을 하니 학우들은 설렐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정보 학부생들 답사 다녀오다

07 황인영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에서는 4년에 한 번씩 도서관학술답사를 다녀온다. 전 학년이 학번을 가리지 않고 교수님과 함께 떠나는 1박2일의 학술답사라서, 지식정보학부 학부생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전례 행사이다. 도서관학술답사를 4년에 한 번씩 가는 이유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개최하는 전국도서관대회가 4년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이다. 도서관학도생 들로서 전국도서관대회를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자긍심과 학업에 대한 열의를 북돋아 주었다.

이번 학술답사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가을이라는 독서의 계절 속에 도서관학도생들의 도서관학술답사라고 생각하니 서울을 떠나기 전부터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은 차마 진정시킬수가 없었다. 그만큼 답사에 대한 기대는 충만하였고, 학우들의 전체적인 참여분위기도 다른 어느 때보다 대단했음을 기억한다.

아마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과 비슷한 패턴의 생활을 하고 학문에만 정진하다가, 그 일상 속에서 벗어나 다른 환경을 체험한다는 사실이 학우들을 기쁘게 만들어주었을 것이다. 또한 이곳과는 다른, 도서관이나 유적지와 같은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삶의 흔적을 더듬어 보고, 그 역사를 되새김하니 나 자신을 돌아켜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임에도 분명했다. 강의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편일률적이고 딱딱한 강의시간을 벗어나 관광버스를 타고 가면서 학우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답사에 대한 생각이나 도서관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니 그들과 좀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다. 학우들과 함께 지식정보학부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답사를 간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괜스레 소속감이나 동질감이 생기기도 했다. 서울에서 순천까지 약 5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창 밖 풍경을 음미하니 마음속 답답함과 지루함이 전부 없어지는 듯 했다.

이동시에는 체계적으로 짜여 있는 일정대로 움직였는데, 우리가 처음 도착한 곳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에 자리 잡고 있는 '순천 기적의 도서관' 이었다. 오후3시쯤 도착하여 꽤나 피곤하였는데 차량에서 하차하자마자 순천의 맑은 공기가 내 머릿속까지 들어와서 피곤이 싹 가시는 듯 했다. 도서관 앞에서 인원점검을 하고 교수님이 순천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짧은 설명을 해주셨다.

순천어린이도서관을 정의하자면, 시민단체와 '느낌표' 라는 방송프로그램이 함께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최초로 설립한 어린이전용 도서관이다. 기적의 도서관 1호관이 내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신기함을 느꼈다. 이곳에서 대략 1시간 반 정도 머물렀는데 내가 이곳에 머문 시간보다 더 많은 감동과 가치를 얻어갈 수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1살 이상의 영유아들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아기자기한 신발장이 보였고, 내 눈높이보다 조금 더 낮은, 전체적으로 나지막한 서가들을 볼 수 있었다. 도서관 건물의 설계에서부터 책걸상, 서가, 화장실 변기 등 모든 가구와 시설이 어린이의 체격과 행동양태에 맞게 디자인되었으며, 아동문학에서부터 역사, 자연, 과학, 환경, 지리, 그림책, 만화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의 지적, 감성적 성장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갖추고 있었다. 도서관 각 공간의 이름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지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린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가 감동적이었다. 나는 순천이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이유를 어린이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다음의 목적지는 구례에 있는 화엄사였다. 순천에서 구례까지 가는 시간도 1시간이 넘게 걸려서 학우들이 많이 지쳐보였다. 화엄사에는 지리산 뒤로 저녁노을이 은은하게 퍼져 나아갈 때쯤 도착했는데 지리산자락의 시원한 바람과 향취는 나를 매혹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역사책으로만 보아왔고, 말로만 들던 화엄사에 발을 딛는다는 생각하니 들뜨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답사가기전날 미처 화엄사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정보를 찾아보지 못하였는데 각 조별로 화엄사 홍보자본이 화엄사 곳곳을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덕분에 화엄사의 위용과 엄숙함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화엄사 안의 각황전이 국호로 지정

되어 있고 대웅전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나도 알지 못한 부분이었다. 또한 화엄사의 명물인 각황전 앞 6.3m높이의 국내 최대 석등과 4사자 3층석탑은 내가 보아오던 그 어느 문화재보다도 아름다웠다. 옛 조상들의 우수한 조각 예술과 공법 앞에 서니 내가 작게만 느껴졌고 나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었다. 답사 첫째 날의 마지막코스인, 지리산 끝자락에 위치한 화엄사는 내 마음을 송두리째 가져갔음이 분명하다.

그렇게 광주에서 1박을 하게 되었는데, 화엄사에서 숙소까지 가는 데에도 이동시간이 지체되어 답사에 대한 조금의 아쉬움을 느꼈다.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뒤 뒤풀이시간을 가졌다. 교수님, 선배, 후배, 동기들과 술 한 잔을 나누니 더없이 좋을 수 없었다. 나 또한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동기들과 흥겹게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다만 뒤풀이 때 음주량을 조금만 줄였어도 다음날 도서관대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후회가 된다.

답사의 마지막 날은 답사의 진정한 피날레라고도 할 수 있는, 전국도서관대회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도서관대회 장소는 4년마다 바뀌지만 올해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치러졌다. "선진일류국가시대, 도서관의 비전과 과제" 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도서관대회에는 도서관계 관련인사와 도서관장이나 타 학교 문헌정보학과학생들, 도서관 관련 업체 임직원들이 참석한다고 하여 나는 기대 반 긴장 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이용남 교수님의 발표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강의를 직접 듣는 나는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도서관대회는 세미나, 강연, 포럼, 워크숍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었는데, 나는 동기3명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발표하는 '어린이도서관서비스 향상 연구 공청회'에 참관하였다. 공청회에서 우리지정과 학생들 말고도 이대, 경기대 문헌정보학과학생들도 볼 수 있었다. 공청회에서 내가 느낀 바로는 이제는 도서관도 시대정신에 뒤쳐지지 않는 중심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아울러 사람들 속에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거듭나야한다는 것이었다. 미래의 사서들과 도서관직원들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기에

문헌정보학을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우리학문에 자부심을 갖고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후에 도서관계의 큰 인물이 되어 성숙된 도서관문화를 이끌어 가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식정보학부생들의 도서관학술답사의 일정은 여기서 막을 내렸다. 이번 답사는 나 뿐 만 아니라 여러 학우들에게 소중한 추억거리가 되었다. 비록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그들이 안고 돌아가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으면 한다. 해가 갈수록 발전하는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에게 박수갈채를 보낸다.



한성대학교대학원 지정과 출신의 재발견

08 이인규

한성대학교 대학원은 진리·지선이라는 건학이념에 따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현대 정보화 사회와 고도산업기술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학문을 연구교육하며 지역사회 및 국가·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프로그램은 문헌정보학 전공과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배우고 있는 학문을 대학원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전공 대학원과정에 우리 과 졸업 학우들이 배움의 열기를 다하고 있다니 뜻 깊고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대학원에 입학한 02학번 차준호 학우와 인터뷰시간을 가졌다.

Q1. 차준호 학우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우리학교를 졸업하고 9월부터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대학원에 입학한 02학번 차준호입니다.

Q2. 우리 대학원은 어떻게요? 대학원에서 배우는 것들 좀 알려주시겠어요?

A2. 우리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는 문헌정보학전공과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나누어집니다. 문헌정보학 전공은 석사과정에 17명, 박사과정에 4명이 있고, 올해 처음 개설된 기록관리학 과정은 9명이 석사과정에 있습니다. 대학원은 4학기동안 24학점을 수강하게 되는 데요 보통 9학점씩 두 학기, 6학점 한 학기 그리고 마지막 학기는 논문을 준비합니다. 4학기동안 영어 시험과 종합시험, 논문을 통과하면 석사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학부 때 배웠던 내용에서 한층 더 심화된 과정을 배우고 실무적인

내용도 함께 공부합니다. 수업은 토론식으로 진행 되는데요 일정한 부분을 미리 공부해온 상태에서 교수님, 다른 대학원생들과 토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리 공부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수업도 재미있고 머릿속에 남는 지식도 많다고 느낍니다.

Q3. 학부과정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어떤 분들이 계시죠?

A3. 학부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론적으로 조금 더 심화된 내용과 실무적인 내용을 공부 한다는 것이고요. 학과수업 외에 개인적인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와 학술대회 참여와 같은 대외적인 활동도 필요합니다. 교수님들은 학부와 똑같은 우리 과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맡아주시고 가끔 외부에서 실무에 계신 분들이 특별 강연을 하거나 수업을 다른 연구소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4. 마지막으로 지식정보학부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4. 혹시나 후배님들 중에 단순히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로 막연하게 '대학원에 나오면 취업이 잘 되겠다' 라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을 나온다고 무조건 취업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문헌정보학이나 기록관리학 관련 기업이 아닌 보통의 기업에서는 인건비를 더 지불해야 하는 석사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학문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대학원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대학원 진학은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 많은 가능성을 열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때와는 다른 경험과 학문적인 지식,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과 대학원의 경우 타 대학원에 비해 원생들도 많고, 많은 부분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늘 신경 써 주시는 교수님들과 열성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선배님과 교수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서없이 설명하였는데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대학원은 여러분이 지닌 열정과 의지에 비례해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라는 것이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 상반기 대학원생 모집이 시작될 것입니다(편집자 註: 12월 12일 현재 정시 모집 기간은 지났고, 수시모집 기간 중 지원 가능함). 많은 후배님들과 대학원 생활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소망하는 일들 꼭 이루어지길 기원 할게요.

대학원수업 열심히 청강하고 있는 든든한 02학번 차준호 학우님! 정진하여 큰 꿈을 이루시길 바래요 ^^

제 25대 학생회 DDC 마무리의 향연

07 황인영

'역동적인 꿈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한 제 25대 지식정보학부 학생회가 어느덧 1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08년에 치러진 학부내의 모든 행사와 경사는, 학생회 학생들의 수고와 노력이 뒤에서 빛을 발했기에 가능하였고 그 사실은 어느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렇기에 2008년이라는 눈물겨운 해가 학생회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기억해야 할 소중한 추억의 기간이 아닌가 싶다.

회장 05학번 김정은 학우, 부회장 07윤요섭, 최애실 학우, 총무 07학번 이은정 학우, 기획부부장 07학번 오지영 학우와 차장 07학번 장우영 학우, 문화부부장 07학번 김미화 학우와 차장 김송정 학우, 선전부부장 07학번 이백록 학우와 차장 홍성현 학우, 마지막으로 편집부부장 07학번 황인영 학우와 차장 허지영 학우를 중심으로 한 이번 제 25대 지식정보학부 학생회는 지식정보학부생들의 눈과 귀가 되어 그들의 의견을 여러 곳에 반영하려 성심껏 노력하였고 편의를 위해 공공선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지식정보학부 학우분들에게 맡긴다.

08학번의 정모부터 시작하여 학과의 공식적인 행사인 예비학교, 새내기배움터, 체육대회, 대동제, 도서관학술답사, 지정인의 밤까지 지식정보학부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기획부터 뒷풀이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기에 그 시간들이 더욱 보람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각 집행부의 임무와 책임의 특징이 뚜렷하게 정해져있지만 제 25대 학생회는 '서로 조화롭게 어울린다.' 라는 말이 아쉬울 정도로 서로의 집행부를 돕고 행사에 적극 참여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1년간 각 집행부가 무슨 일을 도맡아 왔는지 알아보자.

먼저 회장단은 학생들과 학생회, 그리고 교수님, 학교라는 대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들의 의견을 절충하고 중립시키며 때로는 결렬시키는 일을 도맡아왔다. 학생회의 구심점 잘 잡아주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은 때로는 외롭고 부담스러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번 DDC 회장단은 그 역할을 잘 해주었고, 지식정보학부 학우들을 앞뒤에서 잘 이끌어주었다고 판단된다.

DDC학생회 총무는 학생회비를 모금하는 일부터 학생회비의 입, 출금을 담당해왔다. 지출이나 수입이 있을 때마다 매일같이 영수증을 챙기며 가계부에 내역을 적던, 총무가 눈에 선하다. 다른 집행부와 달리 집행부원들이 없어서 총무 또한 많이 외로운 자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열심히 자산관리를 해 준 총무가 대단하다. 깨끗하고 결백한 지식정보학부의 신용은 청렴한 총무가 있어주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기획부는 운영과 기획의 실질적인 측면을 담당해왔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사전준비를 하였으며, 장소섭외나 자료품목조사 등에 힘을 쏟았다. 열심히 조사하면서 어떤 장소와 시간이 행사에 적합할 것인지 비교분석하고 고심하여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었다. 1년간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은 기획부의 땀이 있어서가 아닌가 싶다.

문화부는 활기차고 발랄한 컨셉으로 '마임'을 학부생, 교수님, 우리학교학생, 타 학교 학생들에게 선보이며 학생들에게 흥을 돋워준 집행부이다. 실질적인 '땀'을 가장 많이 흘린 집행부가 아닐까 싶다. 특히나 지식정보학부 문화부는 마임에 대단한 열의가 있으며 실력 또한 보장한다. 이번 문화부 부장과 차장은 인문대 마임패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마임을 공유하고 연구하였음에 그 노력에 더욱 의미가 있다.

선전부는 학과의 행사를 알리는 집행부로서 '자보'를 쓰고 학교 곳곳에 붙이러 다녔다. 행사 뿐 만 아니라 시험기간과 같은 시기에 지식정보학부 학우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열심히 응원을 해 준 집행부이기도 하다. 일반인들은 쓰기도 힘든 붓글씨를 1년 내내 수백 장은 썼을 선전부 학생회학우들이 대단하고 고맙다.

마지막으로 편집부는 필자가 맡고 있는 집행부이기도 하기에 특별한 애정이 간다. '표'자로 시작한 탓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가나다순으로 서기 때문에) 매일 끝에 서서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난다. 편집부는 행사 때 제공되는 리플렛을 비롯하여 학부소개문, 학생회비공지문 등을 발행하였고 1년에 두 번, 즉 학기마다 한 번씩 그림비를 발행하는 집행부이다. 학부소식을 학우들에게 알리는 기사를 쓰고 발 벗고 취재하러 다니는 기자단이다. 참고로 이번 편집부는 부업으로 행사시에 동영상도 만들었다.

그렇다면 학생회간부들의 소감한마디씩을 들어보자.

김정은 - 2008년 '지정인의 밤'을 준비하고 있다. 군 입대 1주일을 남겨둔 기분이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행복하다. 잃은 것 보다는 얻은 것이 더 많아서 또 행복하다. 힘들어 할 때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주고 끝까지 나를 믿어준 25대 학생회 친구들과 지식정보학부. 이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어서 가장 행복했다. 나에게 2008년을 선물해준 사람들. 내 마음속에 하나 하나 소중하게 남아서 잊지 못할 것 이다. 모두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이은정 - 안녕하세요. 1년 동안 지식정보학부의 총무를 맡았던 이은정입니다^^ 처음 총무라는 막중한 일을 맡게 되었을 때부터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에 와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나뉘었던 일보다는 좋았던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낸 학생회 모든 임원들에게도 늘 고마운 마음이 들고, 다음 26대 학생회 여러분들은 25대보다 더 잘해 줄 거라 믿습니다. 지식정보학부 화이팅~!

오지영 -안녕하세요. 기획부 부장 오지영입니다. 지난 겨울에 만나 봄, 여름, 가을을 무사히 보내고 또 겨울이네요. 눈 깜짝할 사이 일 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렸어요. 후련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속상하고, 임기가 끝날수록 더욱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항상 옆에서 힘이 돼준 학생회와 응원해준 동기, 조언해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잘 따라준 후배들까지 모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김미화 - 안녕하세요. 문화부 부장 김미화입니다. 작년 지정인의 밤에 올라가 잘해보겠다는 다짐을 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후련하기도 하지만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아요. 1년 동안 25대 지식정보학부 학생회 임원 모두 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08문화부 후배들 연습 힘들어도 잘해줘서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지식정보학부 파이팅!

이백록 - 25대 학생회로 인사를 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많이 설레었는데 처음 그 느낌을 이제는 느낄 수가 없어서 아쉬기도 하다. 웃는 날 보다 걱정스러운 날이 더 많았었지만 같이 고생해준 학생회 여러분, 친구들 덕분에 보람 있었던 1년이였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고 마지막 행사인 지정인의 밤만큼은 멋들어지게 끝내고 싶다. 학생회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새로 시작하는 26대 학생회분들 파이팅입니다!

최애실 - 2007년 12월, 부학생회장이라는 자리에 올라 어색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올라선 그때가 생각납니다. 2008년 11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어색할지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년 동안 지식정보학부 아래서 꼭 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09년의 해와 함께 힘차게 떠오를 26대 학생회에게 건투를 빌며 지식정보학부의 초발전을 기원합니다.

김송정 - 2007년 지정인의 밤, 25대 학생회로 처음 인사를 드렸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 저희가 2008년 지정인의 밤을 준비하고 있네요~ 25대 학생회!! 모두 수고 많으셨고~ 일 년 동안 문화부부장님과 저를 잘 따라줬던 08학번 후배들 너무 고맙고~ 저희가 처음 08학번을 맞으면서 설레었던 기분을 다음 학생회도 느끼길 바래요~ 파이팅이에요!!^^

장우영- 안녕하세요. 기획부 차장 장우영입니다. 어느새 추운겨울이 다가오고 2008년은 지나가네요. 일 년이 지난 지금, 임기가 시작하기 전 처음 마음가짐은 사라지고 온갖 핑계로 께만 부렸던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학생회 이전에 지식정보학부 학우로써 제 역할하지 못한 점 역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 학우 분들의 노력으로 기억이 아닌 추억으로 새겨진 일 또한 많았던 한 해 같아요. 모두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 막상 소감을 말하라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겪어가면서 지내온 사람들과 시간들이 그저 소중한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부족했지만 좋은 추억 만들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26대 학생회 또한 좋은 추억 만들길 바라고 항상 발전하고 화목하길 바랍니다. 2008년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25대 DDC 학생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지영 - 안녕하세요. 08학년도 편집부 차장을 맡았던 허지영 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빨리 간다지만, 이렇게 빨리 지나간 1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비록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지정을 위해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학우 여러분들의 사랑과 도움이 있었기에 저에게 있어 매우 행복하고 소중한 1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해준 25대 학생회 선배님과 친구들 너무 고생하셨고,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또 다가올 09년의 26대 학생회분들, 파이팅입니다!!^^ 비타민 편집부도 파이팅!!^^

황인영 - 1년 전, 학생회 간부들과 리더쉽 트레이닝을 갔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때 만해도 서로서로 약간 서먹서먹하고 어색했었는데 어느새 부터 우리는 친해져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함께 땀 흘리고 일하고 나서부터 그랬겠지요.. 새내기배움터를 준비할 때만해도 끝이 안보일 것 같았는데 25대 DDC학생회도 어느덧 임기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학부생을 대표하고 가장 밑에서 묵묵히 일해야 하며, 학생회 간부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미처 몰랐지만, 제겐 학생회친구들이라는 소중한 보물이 있기에 고비가 올 때마다 곳곳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임해주어서 너무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선택, 최고의 강의

04 장우영

군 제대 후, 어영부영 한 학기를 보낸 나에게 있어 2008년 1학기는 절대 잊지 못할 시기가 될 것이다. 3학년이라는 학년과 스물다섯 살이라는 나이가 부담과 막막함으로 다가온 시간이었다. 수강신청 책자를 보며 시간표를 짜기 시작했다. 기대 없이 접수했던 무역학과 복수전공에 따라 무역학과와 지식정보학부 페이지를 오가며 시간표 짜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 때, 수강신청 책자에서 낯설지 않은 교수님의 성함을 찾을 수 있었다. '국민경제와 세계경제 -김 상 조' 어디서 들어봤더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얼마 전 읽었던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났다. 아, TV와 신문에서 자주 뵈던 교수님이 이분이구나. 그런데 과목이 너무 빠듯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왠지 모를 기대감으로 수강신청을 했다.

3월 3일 월요일 9시, 나와 같은 생각을 한 학우들이 많았던 것인지 강의실은 비좁다 못해 아무리 옆 강의실에서 책상을 가져와도 더 이상 자리가 없어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은 뒤에 서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3분쯤 지났을까, 교수님께서 들어오셨다. 교수님의 첫 인상은 내가 예상한 강하고 터프한 느낌과는 정반대의 너무도 소탈하고 편안한 마치 큰 형 같았다. 첫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먼저 가장 놀란 점 중 한 가지는 교수님의 수업진행 방향과 내용에 따른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수업자료나 교재가 없다는 것이었다. 준비물은 단지 중요한 내용을 필기할 수 있는 연습장과 펜 그리고 열정이라고 하셨다. 물론 때때로 한국은행이나 국가통계표 등을 준비해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단 이점이 가장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김상조 교수님은 끊임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말씀하신다. 일주일간 있던 경제 현황과 현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대한 것들에 대해 강의 명 첫 느낌만으로는 왠지 어렵고 따분할 것 같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진도와 함께 현 상황, 그에 대한 교수님 본인의 의견과 논평, 그리고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정책 및 우리나라와의 차이점등에 대하여 늘 절묘한 비유와 함께, 듣는 학생들이 재밌게 들을 수 있게끔 가르쳐주셨다. 군 제대 후 처음으로 꾸준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신문 읽는 습관을 들이던 나로서는 뭔가 더욱더 가열 찬 동기부여와 함께 뉴스, 시사프로, 시사매거진 등을 눈에서 떼지 못하게 되었다. 교수님은 강의가 있는 당시의 이슈와 함께 현 정책과 미래방향, 대안점등에 대한 의견과 함께 학교 외 대외적인 일을 통해 겪은 일들과 만나셨던 인사들과의 에피소드등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주시며 우리들을 강의에 몰입 할 수밖에 없게끔 하셨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및 구조 그에 따른 하도급 구조, 내수 및 대외 무역 관계 등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졸음이 밀려올 것 같던 콘텐츠를 하나하나 마무리 짓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서 늘 부듯하고 진정 무언가 배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이런 스타일의 수업이 반복되다 보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역시 '벼락치기' 공부가 필요하지 않았다.

수업시간을 통해 배우고 느꼈던 내용이나 용어에 대한 것들, 혹은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시험문제였다. 5학기 때 학교생활이었지만 '국민경제와 세계경제' 과목만큼 흥미를 갖고 들으며 시험, 과제 걱정 없이 들어본 강의는 처음이었던 것 같다.

한 번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지만 결코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 이 한 몸 불살라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개선된다면 난 더 바랄게 없습니다.' 이 한 마디에 난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월요일 9시 강의이기에 조금은 졸던 뒷자리의 학생들, 소곤소곤 떠들던 학생들까지 모두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무언가 굳은 다짐을 한 표정으로 수업을 들었던 날이 생각난다. 그랬다, 이 수업은 교수님이 강의하시고 우린 단지 배우는 수업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사고하고 느끼는 그런 수업이었다. 쉬는 시간에도 우린 스스럼없이 교수님께 질문하고 교수님과 토론하며 3시간 강의를 마치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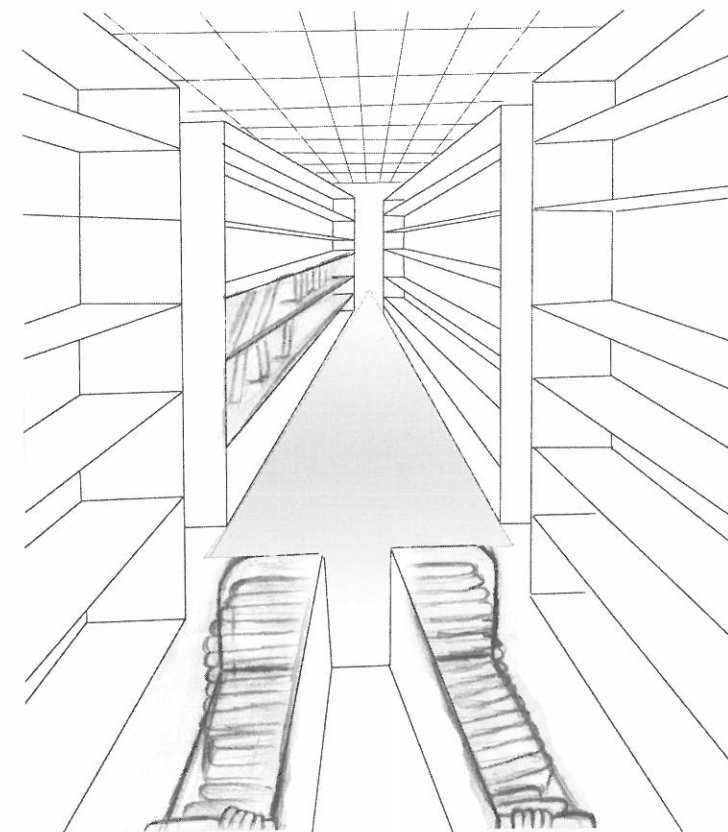
이점이 내가 이 강의에서 타 강의와 다르다고 느꼈던 두 번째 차이점이다. 물론 많은 교수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좋은 강의를 해 주시지만 이 강의에서 느꼈던 80명의 학우가 함께 느끼고 사고했던 강의는 정말 잊지 못 할 강의였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이 강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업시간에 집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강의 방법이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점이 대변해주듯이 강의 진행이 100% 교수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일부의 첨부자료 위에 교수님의 화끈한 화법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바로 당시에 듣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기에 모든 학생은 월요일 9시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출석률과 함께 조용히 집중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졌던 것 같다.

김상조 교수님의 '국민경제와 세계경제' 과목 수업을 통해 나는 그간 무관심하게 여기던 경제문제와 정책 등에 대해 항상 눈 여겨 보고 관련 자료를 늘 찾게 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주변의 동기나 후배들에게도 이 강의를 추천하곤 한다. 하지만 강의를 추천하며 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도 함께 전해주곤 한다. 이렇게 말이다.

"교재비 안 들고 준비물 따로 없다고 끝이 아니라 열심히 듣고 참여할 열정이 없다면 듣지 않는 게 좋아" 라고. 물론 어떤 강의라도 가장 중요한 점이 마음가짐이지만 특히 김상조 교수님의 '국민경제와 세계경제' 는 매시간 교수님이 목이 쉬실 정도로 '열강' 을 하시기 때문에 수업을 허투루 듣고 함께 호흡하지 못한다면 재미도 느끼지 못하고 좋은 학점 역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내의 이러한 주제의 수필공모를 통해 혹여 내가 알지 못하는 한성인에게 조금이나마 알려질 수 있다면 난 주저 없이 다시 한 번 꼭 얘기하고 싶다.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한번은 김상조 교수님의 강의, 특히 "국민경제와 세계경제" 과목만큼은 청강을 해서라도 들으라고 말이다. 제한되어 있는 수강인원 때문에 듣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오늘도 어디에선가 멋진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해주실 자랑스러운 한성대학교 교수님들께 감사하며 글을 마친다.



➡ 왼쪽의 그림은 08학번 민현기 학우가 보내준 작품으로 그림의 주제는 '차곡차곡 나의 꿈' 이다. 도서관 서가 사이로 장서를 담고 있는 카트를 어느 누군가가 밀고 가고 있다. 도서관 서가 사이의 길은 우리의 미래를 나타내며, 카드안의 책은 우리의 꿈, 소망을 나타낸다. 화살표 방향이 끝이 보이지 않는 서가 끝을 가리키는데 이는 지식정보학부생들의 끝없는 열정과 패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

시: 08 이상혁, 삽화: 08 민현기

언제나 그렇게 학교가는 길에 내 콧잔등에 떨어지는 하얀 꽃송이를 맞으며
문득 돌아본 기억속에 낙산을 새파랗게 반짝이던 그 앞들이
아무도 모르게 발갛게 물들어 어느새 작별을 고하는 계절에 다다랐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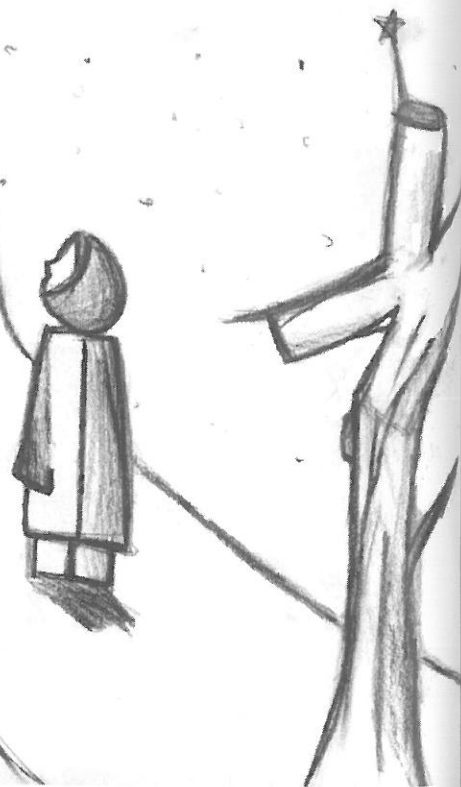
첫 만남의 어색함과 서먹서먹함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유쾌하고 즐겁고 때때로 힘들었던 그대와의,
벌써 추억이 되어가는 하나하나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계절.

시원하게 스쳐간 그 바람에
따스하게 비춰주던 그 햇살에
함께 웃던 그 시간에, 공간에
우리의 온기가 남아있을 것만 같다.

오늘 밤에는 기댈 곳이 없어 비를거리고 힘들어하던 나에게
작은 미소를 새겨준 사람들부터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나의 사람들에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곳에서 고개숙여 인사를 해야겠다.

나는 기억한다.
그대들이 나에게 준 작은 미소가 당신에게는
큰 의미가 아니었을지라도,
무심결에 베푼 작은 친절이었더라도,
그것이
이 낯선 땅과 낯선 세상의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며
혼자서 앓고 괴로워하는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
그 어떠한 것 보다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지 않도록
뒤에서 나의 버팀목이 되주던 따뜻한 손이었던 것을.

이 계절 역시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저 낙산의 앞이 다시 파랗게 돌아오고
따스한 햇살과 다가올 눈부신 계절에 다가올 인연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따스한 손이 되어주고 싶다.



편집부(학술편집부) MT 졸업생 동문선배님들과의 만남

08 전지원

7월 19일~20일, 1박 2일 일정의 편집부 엠티가 있었다. 우리가 하룻밤 묵을 곳은 팔당에 있는 의화장 이이라는 곳이었다. 의화장은 한성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생 수련장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엠티는 재학생만의 엠티가 아닌 졸업생 선배님들도 오시는 그런 자리라고 했다. 편집부에 몸담았던 선배님들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졸업생 선배님들을 처음 만나는 나로서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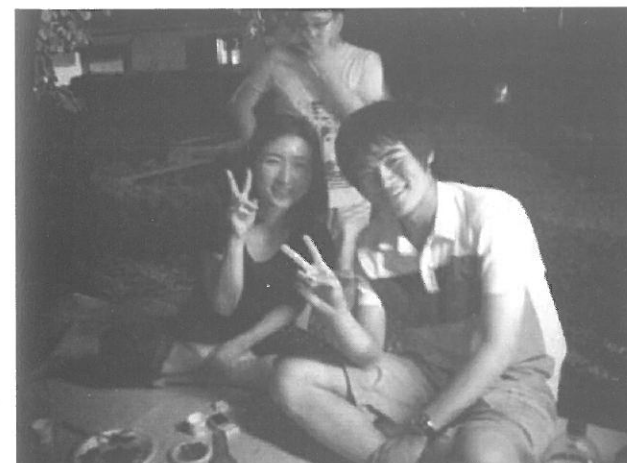
드디어 7월 19일이 되었고, 나는 6명의 선발대중 한 명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옮겨야 될 짐이 꽤 많았는데 그날따라 비가 와서 택시를 타고 용산역까지 가야했다. 고생고생해서 용산역까지 짐을 옮긴 우리는 결국 한 대형마트에서 100원 주고 카트를 사서(?) 짐을 옮기기로 했다. 계단에선 카트를 들어서 옮겼다. 전철에 타서는 두 정거장 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카트를 붙잡고 있었다. 다행히 의화장은 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했을 때, 비도 그쳐서 더운 여름날 모처럼 시원한 딱 좋은 날씨가 되어있었다.

곧 후발대가 속속들이 도착했고 졸업생 선배님들도 볼 수 있었다. 91학번 대선배님을 비롯한 많은 동문 선배님들이 찾아주셨다. 졸업생 대선배님들과의 자리인지라 내심 걱정하고 긴장하는 맘이 있었지만, 너무도 반갑게 대해주시는 선배님들 덕분에 분위기는 곧 화기애애해졌다. 덧붙여 말하자면, 91학번 문진 선배님께선 딸 이름이 지원이라고 나를 특히 예뻐해 주셨던 그런 일도 있었다.

마당에서 가져온 고기를 구우며 선후배간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밌는 얘기를 했고, 졸업생 선배님들께서 재학시절의 많은 재미있었던 얘기를 해주셨다. 선배님들이 재학시절에는 학회지를 모아서 보관해둘 생각을 못했다가 최근야 각자가 소장하고 있던 학회지를 모았는데 지금 재학생들은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해주셨다.

선배님께 술을 따라드리고 선배님의 술을 받으며 동문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졸업생 선배님들이 이렇게 후배들을 잊지 않고 챙겨 주시는 게 정말 고마웠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졸업생과 재학생과의 소통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나 또한 이 고마움을 앞으로 생길 후배들에게 갚고 싶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뒷정리를 한 뒤 의화장을 떠났다. 떠날 때는 짐이 확실히 줄어서 편하게 왔다. 용산역에서 100원 주고 사온 카트도 그대로 기증하고 왔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건데, 졸업생 선배님들을 모시고 엠티를 가는 앞서가는 집행부는 편집부가 유일하지 않나 싶다. 이런 즐거운 자리를 마련해준 재학생 선배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멜라민 파동 그 끝은?

08 심리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멜라민 파동! 믿었던 롯데제과와 세계적인 제과업체 네슬레까지 멜라민이 검출되자 소비자들은 먹을거리 공황상태에 빠졌다. 중국산 우유에서 시작해 유제품, 커피크림, 분유원료, 달걀, 과자 등 광범위하게 멜라민이 검출된 이 상황에 멜라민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대비하도록 하자.

1. 멜라민이란?

멜라민은 간단히 말하면 유기화합물질을 말한다. 이 멜라민은 주로 열에 강한 플라스틱 원료(접착제, 주방용 조리대, 접시류 화이트보드, 화학비료 등)의 생산에 사용된다.

2. 멜라민 (Melamine)은 식품 중에 사용할 수 있는가?

멜라민은 1958년에 비단백질 질소원으로 소의 사료로 사용되었으나 1978년에 다른 비단백질 질소원보다 분해 능력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되었다. (질소원 : 생물이 그 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핵산, 그 밖의 질소 화합물을 만들기 위하여 외계(外界)에서 받아들이는 질소 화합물이나 질소 가스.) 그래서 식품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며 여러 국가 및 국제규격식품위원회(CODEX) 등도 국제적으로 식품에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3. 중국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이유는?

중국에서 분유에 멜라민이 검출된 이유는 젖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우유를 물로 희석시켜 우유의 부피를 늘린다. 그 후 희석된 우유의 단백질 함량이 높게 측정되도록 질소성분이 많은 멜라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 멜라민(Melamine) 오염 식품을 사람이 먹었을 경우 위험한가?

동물실험에서 24시간 내 소변 등으로 90%이상 배설된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나 사람에서의 체내 배설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고, 최근 중국에서 생산된 분유를 먹은 유아에서 신장결석 발생 및 사망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시판 중국산 과자류 등에서 검출된 멜라민 농도는 TDI (내용일일섭취량)를 고려할 때,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나, 멜라민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화학물질이므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5. 주요 멜라민 검출 과자

가든 웨하스 (딸기,초코)	뉴웰 오곡샌드	땅콩 스니커즈	미사랑 카스타드
리츠 샌드위치크래커 (요구르트, 치즈)	해바라기씨 초코렛 (해씨초코)	포테이토 칩 (이탈리안 피자맛)	오레오 웨하스 스틱 (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와이즐렉 버터팝콘	카스타드	양파링	석기시대

전국을 강타한 멜라민 파동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았던 과자류와 유제품관련 상품들이 빠르게 데이 등의 특수의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식약청의 노력으로 먹거리가 보다 안전해졌다고 하지만 아직은 한번쯤 의심하고 확인해보는 지식정보학부 학우님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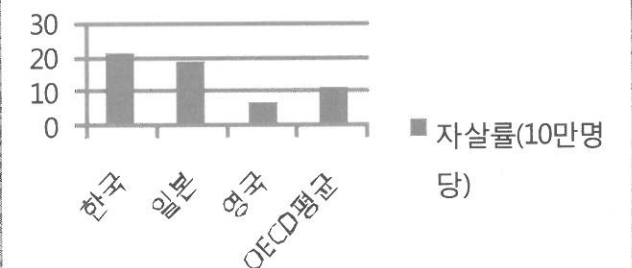
한국인들의 잇따른 자살

08 이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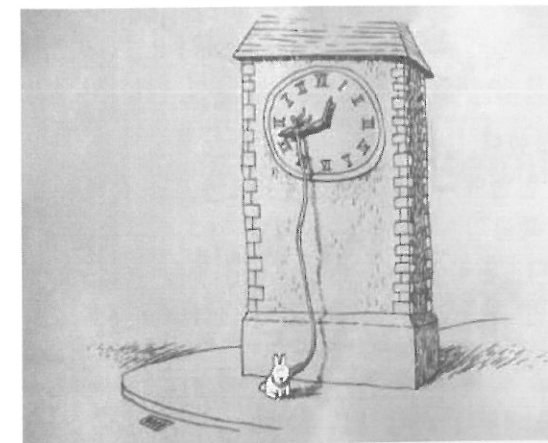
지난 10월 2일, 인기 탤런트 최진실 씨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을 9시뉴스와 주요 신문에서 메인뉴스로 보도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대중들은 자살을 선택한 그녀를 애도하고 안타까워했지만, 한편으로는 베르테르효과에 대해 우려하였다. 베르테르효과란 독일의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인한 잇따른 사건에서 유래된 말로, 자신이 모델로 삼거나 존경하던 인물,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인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알아채기라도 하듯이 잇따라 최진실 씨의 자살방법을 모방하여 자살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으며, 대중들은 이어 더 많은 자살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베르테르 효과로 인한 자살이 아니더라도 이미 한국은 '자살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하루에도 몇 명씩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보건복지가족부 통계(2006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만 명 당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21.5명으로 2001년 15.1명에 비해 5.6명이나 증가하였으며, 한국인 전체 사망원인 중 4위로 꼽히기도 한다. 또한 한국의 자살률은 다른 OECD회원 국가 중 1위로, OECD회원국 평균인 (10만 명당)11.2명을 훨씬 웃도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OECD국가별 자살률(06년)



이처럼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 불화, 직장일 혹은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같은 이유로 인해 생기는 우울증의 증가가 구체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우울증의 증상은 우울한 기분 및 감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한 수면, 식욕, 흥미의 저하와 불안, 자살 생각, 무기력감 등의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 체중의 변화가 심각한 정도이며, 매우 둔하고 느려진다. 또한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 부적절한 죄책감이 동반되며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 만성적으로 피곤하며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고 잠이 많아져 자더라도 개운하지 않다. 그리고 감정과 생각, 욕구와 더불어 신체 증상도 나타나는데 두통, 소화불량, 목과 어깨 결림, 가슴이 답답함 등이 나타난다. 심한 우울증의 경우 망상이나 환각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살의 근본적 원인인 우울증은 주변인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치료가 있다면, 시간이 걸릴 지라도 완치될 수 있는 증상이다. 하지만 이런 증상을 종종 방치하거나 주변에서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살은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주변에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등 일종의 신호를 보내게 된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의 주변인들도 그들의 신호에 관심을 가지며 고민을 들어주고, 외로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살충동을 느끼는 본인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알리며, 치료를 받아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등록금 천만 원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08 신현희

연 등록금이 천만 원에 달하는 시대에 도달했다. 매년 물가인상률을 앞지르며 오른 결과이다. 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일반가정에서 마련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요즘같이 IMF 보다 더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이 배가 된다.

대학등록금이 서민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중 88%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현재 서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물가인상률과 함께 등록금을 올리려고 한다. 지난 10월 22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의 주요대학들이 내년 등록금 인상 방침을 결정했고, 이 외의 대학들은 주요대학들이 인상하니 덩달아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대학들은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립대학들은 누적되어 있는 적립금의 규모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등록금은 매년 향상하고 있지만 학교재단 전입금은 감소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운영수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5.1%인 반면, 학교재단 전입금의 비율은 4.4%에 그쳤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개정된 법안으로 인해 적립금을 이용한 펀드투자까지 가능해져 몇몇 대학에서는 펀드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은 적립금을 이용해 펀드투자를 해도 이것으로 인해 수익을 보았는지 피해를 보았는지조차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등록금인상이 지속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대학들의 행태를 눈감아주고 있는 우리사회, 현 정부의 태도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 내걸었던 반값등록금을 부정하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지역대학생연합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난 달 31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유포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값등록금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

여 국민으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누리게 하든지, 거짓된 공약을 내건 책임을 지고 법의 심판을 받든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고발장을 통해 말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이명박 정부는 1% 특권층을 위한 강부자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감세정책 중 종부세, 법인세 감면액인 3.5조원이면 대학등록금을 30% 인하하거나 하위 30% 대학생의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 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시행이 불합리함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높은 등록금 때문에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 며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높은 대학등록금이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한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어서 올해 신입생들만 청구인이 될 수 있다. 2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지지서명을 받기로 했다. 이 지지서명은 일주일 만에 500여명이 동참했다.

보이지 않는 공개살인 '인터넷 마녀사냥'

07 황인영

한국인들은 현재 첨단디지털시대에 이르러 갖가지 매체를 이용하여 그 이전 어떠한 시대보다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물론 21세기에 들어와 동등하게 발전해 온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가 타국가들 보다 이 분야(정보, IT계열)에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믿어 의심치 않다. 그만큼 한국은 IT나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자산업 쪽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망의 속도는 어느 국가보다 우월하다.

인터넷의 매력은 상상하였던 것 이상이었어서 한국인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직장문화에서 오는 스트레스, 예부터 서려있던 '한'이라는 정서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가상세계에 고질적이고 깊게 안착시켰다. 가상세계의 연결망을 통해 우리는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던 오프라인시절이 가고 중간에 컴퓨터라는 매체를 놓고 얼굴을 보지 않아도 대화가 가능한 시대가 온 것이다. 이 얼마나 동화 속에나 있을법한 이야기인가? 나도 인터넷으로 통신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터넷이란 것이 조심스럽고 신비스럽게 느껴진다.

하지만 과연 컴퓨터(인터넷)라는 것이 인간에게 좋은 결과만 가져다주는 것인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컴퓨터에 관한 여러 가지 폐해는 이미 몇 차례 보고 된 바가 있다. 악성댓글로 인하여 우울증에 걸린 연예인의 자살사건도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다. 한때 논란이 가열되었던 '개똥녀사건' 도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사건의 전후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한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렸던 사건이다.

인터넷문화의 극심한 부작용

1. '인터넷 마녀사냥'이란?

'인터넷 마녀사냥'은 단어 그대로 풀이하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마녀사냥이라는 뜻이다. 마녀사냥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어쩌서 평화의시대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 현대사회에 출몰하게 된 것인가. 마녀사냥(witch hunt)은 십자군 원정이 실패한 이후 종교적 위기가 깊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행해진 이단적 신앙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다. 일단 마녀로 지목되면 실제 마녀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말이 조사이지 실제로는 엄청난 고문이었다. 고문을 견디다 못한 여성들이 마녀라고 인정하면 공개 화형을 당하는 식이었다. 즉, 한번 마녀라고 낙인이 찍히면 살아남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마녀사냥이 익명성이란 보장 안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만 잘못해도 네티즌에게 악성댓글, 인터넷기사로 두들겨 맞는 일이 잦아졌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비록 신체적으로는 해를 입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형국이 벌어졌고 결국 이는 자살과 같은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유니, 정다빈, 안재환, 최진실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많은 이들이 상처를 안은 채 세상을 떠났다. 이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악성댓글을 달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법제적으로도 어떠한 강력한 체계가 잡혀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2. '인터넷 마녀사냥'의 단계

- 1)사건 목격자(피해자)의 인터넷 고발, 호소문
- 2)해당 글이 주요 포털 사이트로 퍼져나감
- 3)네티즌이 댓글로 마녀(가해자)의 죄를 심판
- 4)마녀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미니홈피, 얼굴, 학교, 직장, 핸드폰 번호 등)

- 5) 마녀와 관련된 홈페이지에 비난 글이 쇄도
- 6) 사건을 비꼰 합성사진이나 플래시, 뮤비, 동영상 등의 패러디 저작물들이 생산, 유포
- 7) 언론이 꺼서 해당 사건을 다루게 되는 경우, 강력한 사회적 비판
- 8) 마녀의 완전한 사회적 매장(법적처벌, 휴학, 퇴사, 자살 등)

어쩌면 중시대 유럽의 마녀사냥보다 무서운 것이 인터넷마녀사냥일 것이라는 생각조차 든다. 체계적으로 틀이 잡혀있고, 네티즌들의 추진력과 협동심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 인터넷마녀사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도 우리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국민에 대한 방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마녀사냥의 해결책이라 함은 두 가지 측면으로의 해결이 될 것이다. 첫째는 법적인 측면이고 둘째는 교육적인 측면의 해결이다. 법적인 해결책을 조사해 본 결과 대표적으로 '그린박스 제도'와 '최진실 법(사이버 모욕죄)', '인터넷실명제 도입법' 등이 있었다.

그린박스 제도란 인터넷 보도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직접 기사 내용에 대한 오류 정정이나 경위 해명, 사과 등의 내용을 담은 소명문을 해당 언론사에 보내면 관련기사와 함께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최진실 법은 인터넷 상으로 악플, 유언비어로 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느낄 수 있는 수위의 글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법적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법이며,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에 댓글을 달거나 자기주장을 할 시에 자신의 실명으로 올리게 되는 법이다.



법적인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하겠지만, 이도 발언의 자유라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정부나 기관에서 악용할 수 있는 사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한 개인 또는 단체가 피해를 받는 것을 막고자 법적인 보호측면을 강조해야 할까 아니면 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기능을 가진 하나의 매체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인 측면을 반대해야 할까 논란이다.

나는 국민들의 자살로 까지 이어지는 인터넷마녀사냥을 그냥 방치해두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법제화는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법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면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정답은 인터넷에서의 윤리관을 확립시켜주기 위한 '교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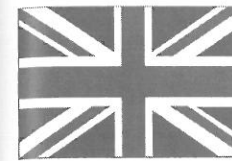
도덕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법치국가에서 법이 아닌 감정에만 호소하여 죄를 심판하고, 누구든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는 용보관념에만 정의한 인터넷 여론재판의 위험성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인권 및 윤리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인터넷마녀사냥의 문제는 지나친 욕설을 하는 네티즌의 접근을 한시적으로 막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우리국민들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터넷문화는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전승될 한국사회의 한 문화이며 우리가 가꿔나가야 할 소중한 공간이다.

세계의 크리스마스

08 이현진



영국 - 영국은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길거리에 캐럴송을 틀어놓습니다. 이 풍습이 세계 각지에 퍼져 우리나라에서도 흔한 모습이 되었지요. 영국의 아이들은 24일, 이브 밤에 벽난로나 화덕 옆에 긴 양말을 걸어 놓고 산타할아버지가 많은 선물이 넣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풍습은 말리려고 벽난로에 매달아둔 양말에 산타클로스가 굴뚝을 타고 내려오다 떨어뜨린 금화가 담기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러시아 - 러시아의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아닌, 그보다 늦은 1월 7일입니다. 러시아의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이브 대신 12월 31일 날 방문한다는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러시아 산타클로스는 '스네구르카(눈의 아가씨)'라 불리는 여자 파트너와 함께 다닌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의 크리스마스는 무더위 속에서 진행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과 춤이 동반된 흥겨운 축연을 벌입니다. 자정 12시가 되면 권총 또는 화약을 사용하여 축포를 쏘아올리고 자신들의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칠레 -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모마리아를 기념하는 안타콜로의 축제와 옛날 인디언들이 하던 말 경기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무용수들이 색색의 옷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춤을 추고, 인형이나 각종 장신구들을 선물로 준비합니다.



네덜란드 - 네덜란드에서는 산타할아버지가 백마를 타고 온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타 분장을 한 할아버지가 백마를 타고 이집 저집을 방문합니다. 성탄절 아침에 경건한 아침 예배가 끝나면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가 휩싸인답니다. 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을 사람들이 떼를 지어 춤을 추면서 캐럴을 부른다고 합니다.



프랑스 - 12월 6일, 니콜라스의 날이 성탄절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념하여 앞서 여러 주간 동안 큰 백화점의 전시대에는 실물 크기의 전설적인 동상들이 놓입니다. 이브 날에는 한밤중에 세 차례의 미사가 이루어지고 캐럴과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크리스마스 날에는 대성당의 광장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담은 예배식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방식은 다르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세계. 하지만 최근 들어 성탄절이 그저 즐기기 위한 하나의 축제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상업적·향락적으로 즐기기 보다는 참된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문화의 집합소 인사동에 다녀오다

08 김영상, 임소영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동.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다. 5호선 종로3가역이나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에서 내려면 인사동을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종로3가역에서 내려서 인사동을 방문했다.

인사동에는 주변에 탑골공원이 있어서 그런지 할아버지들께서 많이 계셨고, 역시나 외국인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꼭 들른다는 장소 중 하나인 만큼 일본, 중국, 미국 등 세계각지에서 온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인사동거리에 들어서자, 인사동임을 알려주는 비석과 함께 특이한 분수들이 있었고, 다양한 한국문화를 알리는 물건들을 파는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 상점들은 한글이 적힌 티셔츠나 도자기, 탈, 붓 등 한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건들을 팔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보이며 열심히 구경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니, 왠지 모를 자부심이 들기도 했다. 또 인사동의 특징을 바로 찾을 수 있었는데, 바로 상점에 있는 간판들이었다. 인사동 내에 있는 간판들은 대부분이 한글로 씌어져 있었는데, 2개의 편의점을 빼고는 모두 한글로 되어있는 간판들이었다. 레드망고, 크라운 베이커리, 그리고 말로만 들던 한글로 된 스타벅스 커피점도 실제로 볼 수 있었다.



을 뿐만 아니라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즐겨 찾는 장소이다.

또, 스타벅스를 오른쪽에 두고 좀 지나가다가 왼쪽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갓, 오래된 타자기, 옛날 돈, 고서들을 파는 상점도 있었다. 특히 백 원, 오백 원이 지폐로 되어있는 옛날 돈을 실제로 보니 우리도 외국인만큼이나 신기했다. 골목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아름다운 차 박물관'이 있는데, 이곳은 건물 자체가 한옥이어서 아름다웠고,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단조로웠다. 자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 박물관은 다양한 차들과 자기로 된 아름다운 찻잔들을 전시해 놓았

다시 골목에서 나와서 큰 길을 건다 보면 한국의 미를 엿볼 수 있는 동네이니만큼 단조로우면서도 세련된 건물들이 많이 있었다. 그 중에서 좀 특이하고 넓은 건물이 한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건물은 바로 '쌈지길'이라는 건물이었다. '쌈지길'은 지하1층부터 4층까지 있는 건물로, 건물 전체가 조그마한 가게들로 이루어진 곳이었다. 각 가게들에서는 조그마한 액세서리, 한복, 곰 인형 등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것들을 많이 팔고 있었다. 또 예술대학교에서 졸업 작품도 전시하는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입구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벽에도 한글이 쓰여 있고 낙서 같은 그림과 어울려 굉장히 귀여웠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벽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관광객들도 많았다. '쌈지길'의 특징은 층에서 층으로 올라갈 때 계단이 아닌 비스듬한 각도의 복도로 올라간다는 것이었는데, 복도에도 각종 가게들이 있어서 눈을 땔 수 없었다. 4층에 올라가면 옥상정원이 있는데 바깥을 내다 볼 수 있고, 의자에 앉아 잠시 쉴 수도 있다. 이곳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마시는 생맥주는 또 다른 재미 일 것이다. 4층까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1층까지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 사이사이에도 의자가 있어 잠시 쉴 수 있다. 쌈지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알아볼 수 있다.



인사동 가게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한국 전통 기념품도 많이 팔지만, 그 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추억이 될 만한 물건들도 많이 팔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우리까지 알고 있는 아폴로, 달고나, 쫄면 등의 불량식품들을 3개에 천원 식으로 묶어 팔고 있었다. 또한 길 중간 중간에서 호박엿과 꿀타래도 많이 팔고 있었는데, 꿀타래는 궁중에서 임금님이 먹었던 다과로써, 꿀을 숙성시켜 호두크기의 덩어리로 만든 후 링 모양으로 만들어 손으로 눌러서 16,000여 가닥의 꿀로 된 실타래를 만든다. 그리고 속에 호두, 땅콩, 아몬드 등 견과류를 넣어 먹는다. 꿀타래는 인사동에서 꽤나 유명한 간식거리 중 하나인데, 10개에 5천원으로 가격은 좀 비싸지만 호박엿과는 또 다른 간식거리였다. 꿀타래를 파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손님들께는 당당히 설명해 주셨는데, 외국인들에게는 간간히 delicious, honey와 같은 짧은 영어로 홍보하며 파는 모습이 웃기기도 했다. 먹거리를 하나 더 소개하자면, 인사동에는 터키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이 있다. 실제 터키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외국인께서 큰 쇠 주걱으로 아이스크림을 계속 반죽하고 계셨다. 이 아이스크림은 맛도 있지만 상온에서 잘 녹지 않고 쫄쫄해서 거꾸로 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등 보통 아이스크림과는 달라 인기가 좋다.

다양한 먹을거리가 있는 인사동에는 곳곳에 개인 갤러리도 굉장히 많이 있다. 대부분의 갤러리들은 무료로 들어가서 그림을 구경할 수 있고, 조용하고 아담한 분위기여서 여유를 즐기면서 천천히 돌아보기에 좋다. 이렇게 갤러리가 많아서인지 인사동 길 중간 중간에는 다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앉을 수 있는 돌로 된 의자가 굉장히 많았다. 이 의자들 위에는 시가 씌어져 있었고, 안국역 쪽 골목에는 의자 아래로 물이 흐르는 등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웠다.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들이 있는 인사동은 언제나 열려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쉽게 찾아갈 수도 있어서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누구나 즐겁고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으로 추천할 만한 곳이다.

바람의 화원 신윤복 그리고 김홍도

08 장수진

최근 드라마 「바람의 화원」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 신윤복 역에 문근영, 김홍도 역에 박신양이 연기하는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는 이정명의 《바람의 화원》이 원작이다. 역사에 보면 김홍도에 관한 기록은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김홍도와 같은 주제를 두고 그린 그림도 많이 발견되고, 도화서 화원생활을 같이한 동시대 사람인 신윤복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드라마 「바람의 화원」은 기록되지 않은 사람인 신윤복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진행한다. 그의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유달리 신윤복은 여인들의 그림이 많은데,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쉽지 않은 조선시대에 그의 그림은 상당한 의구심으로 남는다. 그래서 드라마는 '신윤복이 여자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드라마에는 실제역사와 다른 부분이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림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 사람들에게도 신윤복의 그림과 김홍도의 그림은 각광받고 있다.

혜원 신윤복(申潤福)은 김홍도(金弘道), 김득신(金得臣)과 더불어 조선 3대 풍속화가로 불려진다. 기록에 의하면 속화를 즐겨 그려 도화서에서 쫓겨난 것으로 전해지지만, 그가 화원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의 부친인 신한평(申漢枰)과 조부는 화원이었다고 한다. 기록이 많지 않아서 19세기 초에 활동한 직업 화가로, 많은 풍속화를 그렸다고 짐작할 수 있다. 혜원 신윤복은 주로 도회지의 한량과 기녀 등 남녀 사이의 은은한 정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렸다.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의 작품들 대부분이 그러한 풍속화이다.



<기다림 - 혜원 신윤복>

오른쪽의 그림은 혜원 신윤복의 「기다림」이라는 그림이다. 드라마에서는 외유사생을 나간 신윤복이 담장 밖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한 여인을 그렸는데, 그 여인이 사실 정순왕후였던 것이다. 그로 인해 정순왕후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을 찾아 벌을 주려는 소동을 벌이고, 결과적으로는 김홍도와 신윤복이 만나는 계기가 된 그림이다. 정갈한 붓 칠과 빈틈이 없는 구도, 오른쪽으로 뻗은 버드나무 줄기, 그리고 보이지 않게 고개를 돌린 여인의 모습에서 기다림이 묻어난다.

다음의 그림은 「단오풍정(端午風情)」이다. 드라마 속에서는 화원시험을 치를 때 그린 그림이다. 화원시험에 두 가지 주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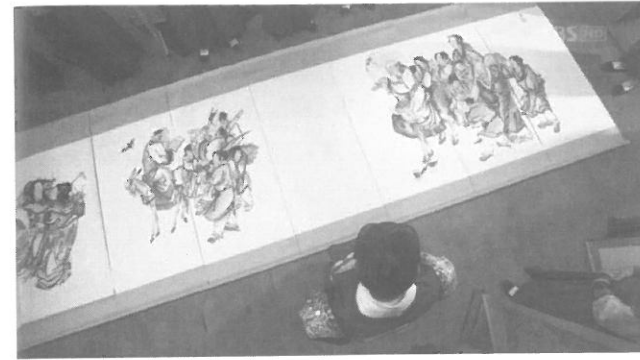
제시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의궤의 그림을 그리지만, 화제로 제시된 그네 뛰는 시조를 가지고 단옷날 그네 뛰는 여인들을 그리기로 한다. 그래서 여장을 하고 남자는 들어갈 수 없는 계곡에 들어가 그림을 그린다. 이 그림은 현재 성북동에 위치한 간송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다. 그네를 뛰는 여인은 붉은 치마로 하여금 시선을 잡아끈다. 개울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들과 머리를 만지고 있는 여인의 그림 하나하나에는 섬세함으로 그려져 있다. 여인을 초점으로 하여 물이 흐르는 개울과 언덕으로 화면을 빈틈없이 한다. 거기에 바위 틈으로 훑쳐보는 승려들을 그려 넣어 재미를 더한다.

단원 김홍도(金弘道)는 강세황(姜世晃)의 천거로 도화서 화원이 되어 1771년에 당시의 왕세손이었던 정조(正祖)의 초상을 그렸다. 또한 1781년(정조 5년)에 어진화사로



<단오풍정 - 혜원 신윤복>

정조를 그렸다. 그리고 백성들의 행실의 모범이 되는 충신, 효자, 열녀들을 기록한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의 삽화를 그렸다. 혜원 신윤복과는 다르게 단원 김홍도는 산수화, 인물화, 신선화(神仙畵), 불화(佛畵), 풍속화모두에 뛰어났다, 특히 산수화와 풍속화에서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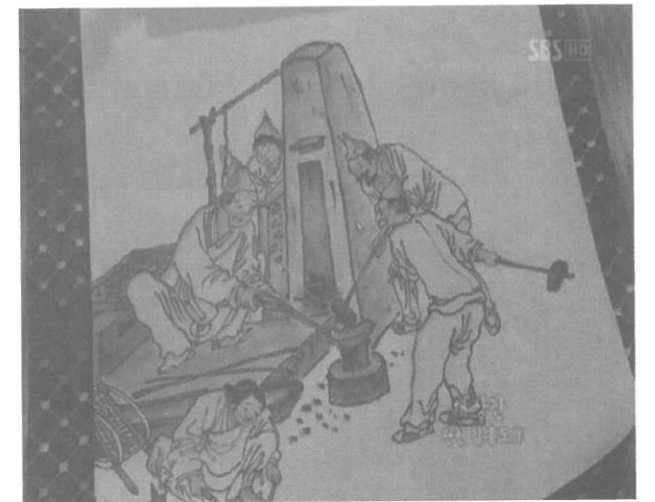


<군선도팔곡병 - 김홍도>

꺼질 수 있게 각각의 신선들은 들고 있는 물건이나 행동이 각기 다르다. 작품의 내용은 서왕모(西王母)의 생일잔치에 초대되었을 때 동참했다는 신선들의 행렬을 그린 것이다. 위쪽의 화면은 드라마에서 소개된 군선도이다.

다음은 김홍도의 「대장간」이라는 그림이다. 이 그림은 보물 제 527호로 지정된 《단원풍속도첩(檀園風俗圖帖二十五幅)》에 수록되어 있다. 드라마에서 동제각화를 할 때 신윤복이 「무녀신무」를 그렸다면 김홍도는 「대장간」을 그렸다. 불에 달궈진 쇠덩이를 망치로 두들기고, 새로 버린 낫을 갈고, 풀무질하는 등 활기찬 대장간의 한때를 그린 것이다. 「대장간」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장비와 기구들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배경 없이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들 각각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지금은 찾기 쉽지 않은 대장간의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은 역사에서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로 구분된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백성들을 모습을 그림에 담은 풍속화를 주로 그렸다. 이러한 점에서 두 사람은 양반들의 고매한 그림보다는 사람같이 행동하고 느껴지는 그런 그림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드라마 「바람의 화원」을 통해 과거 민중들의 모습을 전해주는 두 화가를 재조명해준 매개체가 되는 점에서 열광하는 것이 아닐까?



<대장간 - 김홍도>



하늘과 맞닿은 바람의 나라 몽골

08 하늘빛

나는 1학기 때 한성대학교 해외봉사단 5기 '누리보듬'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덕분에 약 3주간 몽골에 나갈 기회가 있었고, 학교 다니면서 약 두 달간 준비한 후에 몽골 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칭기스칸 공항에서 내렸을 때가 6월 23일이었다. 당시 한국은 꽤나 더운 시기였지만, 몽골에서 내렸을 때는 정말 추웠다. 밤 10시인데도 아직 한국의 8시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어둠과 쌀쌀한 날씨는 정말 처음부터 "아 여기가 타국구나"를 느끼게 해주었다. 그 후 자르갈란트 지방에 있는 숙소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는데 정말 길이 제대로 나 있지가 않았다. 완전히 비포장도로 투성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길을 찾아가는 기사님이 신기할 정도였다. 간혹 가다 나오는 2차선 도로가 그저 반가울 뿐이었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짐 차가 빠졌다. 우리가 오기 전에 잠시 왔던 비로 인해 흙길이 완전 진흙탕으로 변해서 차가 빠진 것이다. 우리는 차를 밀어서 다시 이동하고 다시 빠지고 다시 밀고 다시 이동하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차에 있는 짐들을 전부 들고 진흙탕 길을 두 시간동안 걸어서 숙소로 도착할 수 있었다. 중간 중간 들리는 짐승의 울음소리는 긴 여행에 지친 우리를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게 만들었고, 숙소로 도착하자마자 긴장감과 설렘으로 잠을 설치는데 대신에 "아 여기가 숙소구나!"를 외치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잠들게 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우리를 당황하게 한 첫 번째 장소는 화장실이었다. 정말 시골에서나 볼 수 있던 그 화장실... 밑에 구멍이 뚫려있고 앞이 열려있고 대충 나무로 삼면을 막아 둔 이 화장실은 놀랍게도 남녀 공용이었다. 거기다가 그곳에서 마주친 동네 할아버지는 정말 충격과 공포였다. 칭기스칸 보드카를 드시고 취기가 어느 정도 올라오신 이 할아버지는 우리를 보자마자 대뜸 큼지막한 돌을 들고 달려오시더니 이내 나한테 갑자기 안기라는 신호를 보냈다. 내가 안기자마자 거칠하고 까칠한 사포같은 수염으로 내 얼굴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담배와 술 냄새가 섞여서 났으며 내 코를 심각하게 자극했다. 하지만 나는 버텨야만 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기에. 그 후 갑자기 아저씨가 내 볼에 입을 맞추고 이마에까지 입을 맞추었다. 그러더니 아저씨는 갑자기 아주 조금 남은 피던 담배를 주셨다. 비록 흡연자긴 했지만 그 담배만은 피우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도착했던 첫 주는 거의 내내 비가 쏟아졌다. 몽골에서 비가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한다. 덕분에 농사도 제대로 안되고, 3일 연속 비가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현재 전 세계 기상이 변으로 몽골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몽골인 입장에서 좋은 소식일지 나쁜 소식일지...몽골에서 비가 오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뜻인데, 우리가 도착했을 때 무려 1주일간 비가 왔으니 몽골 주민들은 굉장히 우리를 환영해주었다. 하지만 아직 몽골에서는 타민족을 배척하는 기운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고, 실제로 교수님께서 몽골 현지 주민에게 한 대 제대로 맞으신 경우도 있었다.

몽골인들의 원래 성격은 굉장히 착하다. 하지만 그들의 자존심은 어떠한 민족들보다 강해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덕분에 특히 몽골을 깔보는 중국인들의 경우, 간혹 길거리에서 몽골인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고 한다.

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몽골에는 비가 참 안 온다. 덕분에 물이 정말로 귀하다. 우리도 몽골에서 식수를 제외하고 하루에 페트병 2병으로 23명이 씻었다. 샤워는 1주일에 한번, 머리는 3일에 한 번 감을 수 있었다. 몽골에는 산이 참 많다. 이곳저곳이 다 언덕이고 산이다. 정말 가는 곳마다 장관이 아닌 곳이 없고, 하늘은 아름답고, 해는 8시30분정도까지 났다.

우리가 몽골에서 한 건 교육봉사였다. 주 5일 한국어와 외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가르쳤고, 토요일은 숙소에서 쉬고 일요일은 관광을 다녔다.

몽골에서는 칭기스칸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몽골에서 만들어진 최고의 보드카에 칭기스칸 보드카라는 칭호가 붙고, 몽골에서 최고로 큰 국제공항의 이름은 칭기스칸 공항이다. 이들이 칭기스칸에 갖는 자부심은 정말 대단하다. 만일 몽골에서 칭기스칸에 대해 잘못 말할 경우 정말 길거리 한복판에서 맞아 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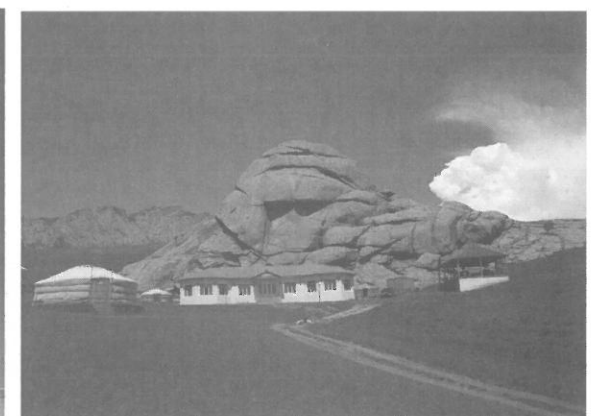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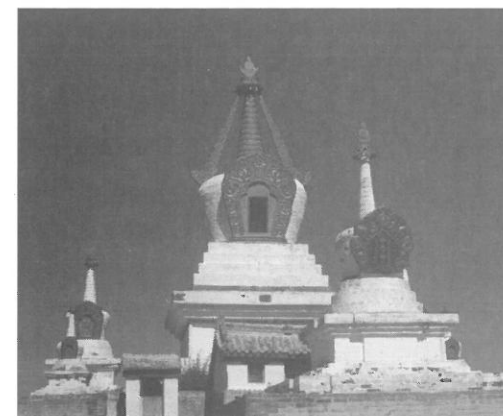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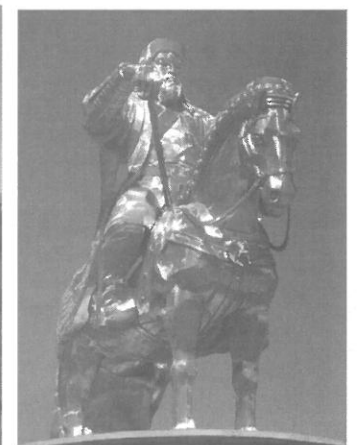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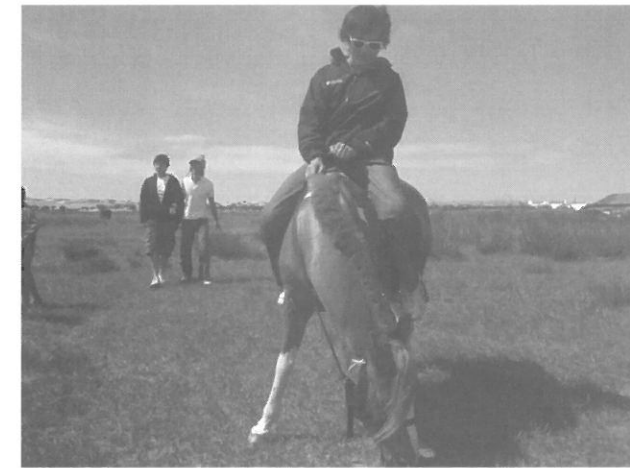
을 수도 있다.

몽골의 황금과 같은 역사와 함께 한 칭기스칸이기에 몽골의 수도 외곽 쪽에는 현재 거대한 크기의 칭기스칸 동상이 건설 중이다. 여기에 든 철만 해도 수십 톤이고 돈도 정말 천문학적으로 들었다고 하지만, 칭기스칸 동상에 세금을 투자하는데 반대하는 몽골인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몽골에서는 칭기스칸은 그야말로 신성시되는 존재였다. 다만 아쉬운 건 주변이 너무 허허벌판인데, 근처를 곧 관광단지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게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한다.

교육봉사 2주째 일요일에는 테를찌를 갔다. 구름이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이곳은 정말 찍는 사진 모두가 작품이 되는 멋진 곳이다. 몽골에서는 강이 정말로 귀한데, 이곳 테를찌에는 일단 강이 흐른다. 정말로 멋진 곳으로서, 허르헝이라는 몽골 전통음식(양의 위속에 돌을 넣은 후 가열하여 위 속에 있는 돌이 가열되어서 양의 속까지 확실하게 익게 하는 요리로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삼계탕의 양 버전(?)이되, 국물이 없는 삼계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맛은 정말 끝내준다.)을 파는 레스토랑과 말을 탈 수 있는 승마장과 멋진 바위들이 있는 바위촌(?)과 레프팅과 텐트를 칠 수 있는 강가로 나뉘어져 있는 관광지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허르헝을 먹은 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이곳은 물이 귀하기에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하는 정도는 일상 다반사였다. 수도나 관광지인 경우 물이 아주 잘 나왔는데 그 이유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못 느끼게 해서도 있지만, 빈부격차의 차이가 그만큼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이곳의 바위들은 전부 다 멋졌다. 바위 틈 속으로 자라는 나무들은 앙상하긴 했지만 곧게 자라있었으며, 나름대로의 위엄을 자랑하였다.

몽골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말을 탈 줄 알고, 우리나라 막걸리와 비슷해 보이고 알콜 함유량도 비슷하지만 맛 하나는 정말 구역질나는 마유주를 즐겨 마시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맛의 우유와 아이스크림을 먹는 나라이지만, 그래도 착한 국민들과 순진한 학생들, 그리고 때 묻지 않는 자연은 정말로 나에게 커다란 감동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자존심은 누구보다 드세고 드높았다. 그 자존심만큼만,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몽골은 최강대국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몽골, 앞으로 살면서 한 번쯤은 더 가보고 싶은 나라이다.





작가 윌리엄 서머셋 모(1874~1965, 91세)은 주불 영국 대사관 고문 변호사의 아들로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영어보다 프랑스어를 먼저 배운 그는 유년시절을 파리에서 보냈다. 9세 때 모친을, 11세 때 부친을 각각 여윈 후, 영국의 남쪽 켄트 주에 사는 목사인 숙부의 집에서 학교를 다녀야 했다. 10대 후반기에 폐결핵으로 요양 생활을 했고 건강을 회복한 후 독일로 유학을 다녀야 했다. 다시 런던으로 돌아온 그는 세인트토머스 병원 부속 의과 학교에 다닌 후 의사생활을 하였으나, 이후 작가의 길로 나섰다.

1908년에 쓴 희곡 <프레드릭 부인>이 성공을 거둔 이래, 꾸준히 작품 발표를 하여 2년에 걸쳐 쓴 반자전적 소설 <인간의 굴레>(1915)를 비롯하여 <달과 6펜스>(1919), <과자와 맥주>(1930), <면도날>(1944), <카탈리나>(1948), <여기저기> 등의 걸작을 남겼다.

1919년에 출판된 이 소설은 주인공의 개성이 매우 강하다. 프랑스의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을 모델로 했는데 그의 전기가 아니라 폴 고갱이라는 인물의 이미지를 따온 것이다.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던 정말 평범한 주식중매인인 스트릭랜드는 돌연 집을 나가 그림을 그리는 생활을 시작한다. 화자인 나는 그의 아내에게 부탁을 받아 그를 찾아가 설득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그 후에 우연히 만나게 된 그는 돈이 없어서 매우 고생을 하며 지낸다. 그러던 중 나의 친구인 더크 스트로브가 그를 천재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돌보게 된다. 하지만 스트로브의 아내가 스트릭랜드를 사랑하게 되면서 이 일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된다. 그 후 몸도 돌보지 않고 오로지 그림만 그리는 생활을 하다 눈이 멀고 문둥병에 걸리게 된다. 최후에 그는 타히티라는 섬의 오두막집 벽에 그림을 그려 남기는데 이 그림을 본 작중의 화자는 큰 충격에 빠지며 그가 천재라는 것을 인정한다.

달과 6펜스라는 제목은 상징이다. 달은 예술적인 것이나 광기를 뜻하고 6펜스는 세속적인 것 혹은 돈을 뜻한다. 이 소설을 읽는 사람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에서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게 된다. 그런 삶은 무언가에 붙잡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스트릭랜드는 소설 속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어쨌든 그림을 그려야 한다지 않소? 그러지 않고서는 못 견디겠단 말이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는 문제가 되지 않소. 우선 헤어 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어요.”

이것은 그가 가진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일 것이다.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민음사판과 소담출판사판과 문예출판사판을 직접 비교해본 결과 가독성은 소담출판사가 가장 좋았고 그 다음이 민음사판, 문예출판사 순이었다. 그러나 민음사판에 있던 내용이 소담출판사와 문예출판사판에서는 일부분 빠져 있었다. 내용을 빠뜨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민음사판을 읽길 권한다.

고전이라 불리는 것치고는 매우 흥미로워서 쉽게 읽을 수 있다. 처음의 지루한 부분만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빠질 것이다. 소재가 소재이니 만큼 그에 따른 해석도 매우 다양하다. 혹시 최근에 읽을 책이 궁하다면 이 책을 읽고 자신과 스트릭랜드를 비교 해보는 게 어떨까?

08 김 솔

v. 삶의 쉼터 ①

겨울을 준비하는 MUST HAVE ITEM

08 유솔지

하루가 다르게 가깝게 느껴지는 겨울.

스타일을 살려주면서 보온성까지 똑똑하게 챙겨주는 올 시즌 아우터들을 체크해보자.



Style 1.

진한 코코아빛 무스탕 자켓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급스러운 느낌, 스키니진에 원색 힐이나 소재가 독특한 소품 아이템들과 매치하면, 고급스럽기만한 무거운 느낌에서 벗어나 좀 더 경쾌하고 패셔너블해질 수 있다.

안감 전체가 복슬복슬 양털로 되어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한 아이템. 얇은 티셔츠 한 장과 함께 해도 거뜬하다.

Style 2.

찬바람이 불면 결코 빠질 수 없는 가죽 자켓, 풍성한 니트머플러와 이너아이템의 변화로도 보온성과 스타일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머스트해브아이템.



style 3.

보온성을 따지는 실속파 패션피플들이라면, 라이더 디자인의 스타일과 포근하고 따뜻한 기모 면소재로 보온성까지 갖춘 아우터에 주목할 것.

핫팬츠나 미니스커트는 물론 스키니와 데님과도 잘 매치되는 실용적이면서 따뜻한 아이템.



복고풍 영향으로 모직 숏팬츠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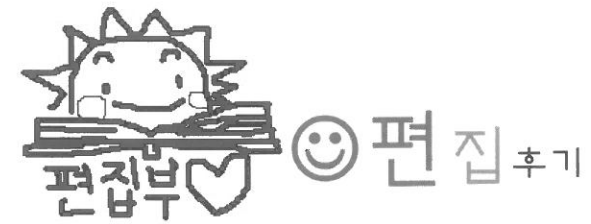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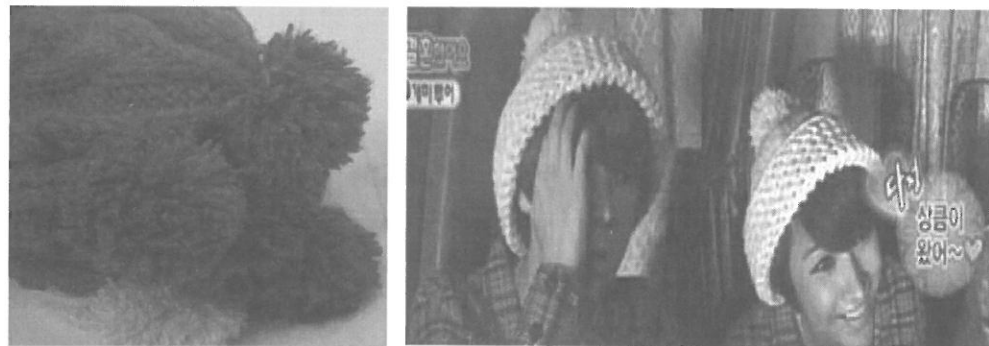
추운 겨울에 엉덩이만 겨우 덮이는 짧은 반바지를 입는다?
올겨울에는 숏팬츠 한 장 정도 마련하지 않으면 '유행에 뒤쳐진다' 는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 날씨가 쌀쌀해진 이달 초부터 이미 모직 숏팬츠에 레깅스를 입은 여성들이 종종 눈에 띄기 시작했다. 패션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겨울에는 귀엽고 경쾌해 보이는 짧은 반바지에 재킷이나 코트를 입어 소년 같은 느낌을 주는 스타일이 크게 유행할 전망이다.

숏팬츠가 겨울에 등장하는 것은 올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유행했던 레깅스의 인기와도 무관치 않다. 숏팬츠 안에 두툼한 레깅스를 입으면 한겨울에도 다리를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춥다면 종아리를 가리는 부츠를 신어주면 되므로 추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트렌드 아이템

요즘은 손으로 뜯 투박한 느낌을 살린 털모자가 유행인데 큰 방울이 달린 귀여운 느낌의 모자나, 귀 부분을 덮을 수 있게 된 모자는 보온 효과가 아주 훌륭하다. 그리고 목에 살짝 머플러를 둘러주는 것도 보온 효과와 멋을 같이 살릴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또한 목폴라 스웨터 위에 살짝 두를 수 있는 머플러도 베스트 아이템이다.



07 황인영 - 새내기시절 편집부에 들어가 미숙하게 첫 기사를 쓰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1년이 지나서 편집부 부장으로 집행부를 이끌고 학기별로 총 두 번의 그림비를 발간했다. 뒤돌아보니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2008년은 편집부MT도 다녀오고 편집부 대선배님들도 여러 번 만나 뵈었고, 후배들과도 허물없이 지내게 될 수 있었던, 나에게 정말 소중한 한 해였다.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우리, 경선누나와 동기들 그리고 편집부 후배들에게 너무도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 내년에도 그림비작업과 학생회활동을 할 것만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 시원섭섭한 감정이 든다. 2009년엔 행복한 노후를(?)보내야겠다^^

09 허지영 - 08년도 편집부 차장으로서 만든 두 번째 그림비이자, 마지막 그림비입니다. 항상 시간이 흐른 뒤엔 시원섭섭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언제나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림비를 만들면서 학우분들 마음에 들어야 할텐데 라는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때가 벌써부터 그리워 시작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항상 묵묵히 지켜봐주셨던 교수님들과 06 유리선배와 경선선배, 동기 후배들, 그리고 많은 학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많은 격려와 애정으로 이번 해를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사적인 이야기라 죄송하지만, 지금 군대에 가 있는 태진아, 건강 조심하고 항상 우리가 뒤에 있다는 거 잊지 마!^^ 지식정보 학우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2008년도 잘 마무리 하시구요, 다가올 09년 새롭게 멋지게 시작해요, 지정 파이팅입니다!^^

08 장수진 - 드디어 두 번째 그림비를 완성했다. 여전히 그림비는 어려운 과제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저번에 보다는 좀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많았지만, 분량을 맞추려고 놓친 이야기들이 아쉬웠다. 미흡한 점이 많겠지만, 다른 것 보다는 완성과 과정에 의의를 두고 싶다.

08 임소영 - 예전에도 갔었지만 인사동은 아직도 명색에 걸맞게 한국적인 분위기가 가득했다. 거리에서 파는 군것질거리부터 상점에서 파는 크고 작은 물건까지, 모든 것이 그러했다. 특히 쌈지길에서 파는 액세서리와 작은 소품들은 충동구매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또 길에 있는 벤치와 표지판들도 인사동 이미지에 걸맞게 아름다워서 인상 깊었다. 사실 거의 모든 상점들이 너무 같은 패턴의 물건들을 팔아서 난 지루함이 없지 않았지만,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며 만지고 물어보고 관찰하는 것을 보니 웃기기도 하고 자부심도 들었다. 1학기 때 갔었던 해이리와 출판단지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던 기행이었다.

08 김영상 - 어렸을 때 가보고 한동안 가지 못했던 인사동은 예전에 내가 봤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현대적인 멋스러움이 풍기는 건물들도 늘었고, 전보다 외국인들도 자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았다. 인사동거리를 보고 있으면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국인들과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들이 나온 아이들, 다정하게 걷는 연인들, 웃고 떠드는 친구들, 고서점을 둘러보는 할아버지 등 가지각색의 모습을 한 사람들을 다 만나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지하철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동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았고,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는 곳이어서 자주 찾아 갈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여러모로 재밌는 기행이었다.

08 이현진 - 2번째로 쓰는 기사네요. 크리스마스라... 와아, 가만 보니 벌써 한 해가 다 가버렸네요. 딱히 한 것도 없이 우왕좌왕하기만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꼭 더 의미 있는 일들로 한해를 채우고 말거예요! 독서, 토익, 한문, 전공, 일어, 운동, 자격증... !*\$#&*@#\$%@...-0-;;

08 신현희 - 이번 마감에는 이상하게 숙제가 많이 끼였어서 아슬아슬했다. 그래도 다행히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급하게 쓴 글이라 조금 허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많은 학우들이 내 글을 보고 다 같이 동감해주었으면 좋겠다.

08 김솔 - 1학기 때 책에 관련해서 쓰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이 해서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고 또 많은 영향을 끼친 책에 대해 썼지만 뭔가 좀 부족한거 같다. 느낀 것이 글로 잘 표현이 안 되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한번쯤은 권해주고 싶은 책이라 저 책으로 선택했다. 다음에 기사를 쓸 때까지 다른 책도 많이 읽고 글솜씨를 좀 늘려서 다음에는 더 좋은 기사를 쓰고싶다.

08 이슬 - 여차저차해서 이번에도 무사히 기사를 쓸 수 있게 되었네요, 뭐 이번엔 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ㅠ_ㅠ 이번에도 기사쓰고 편집하시느라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하자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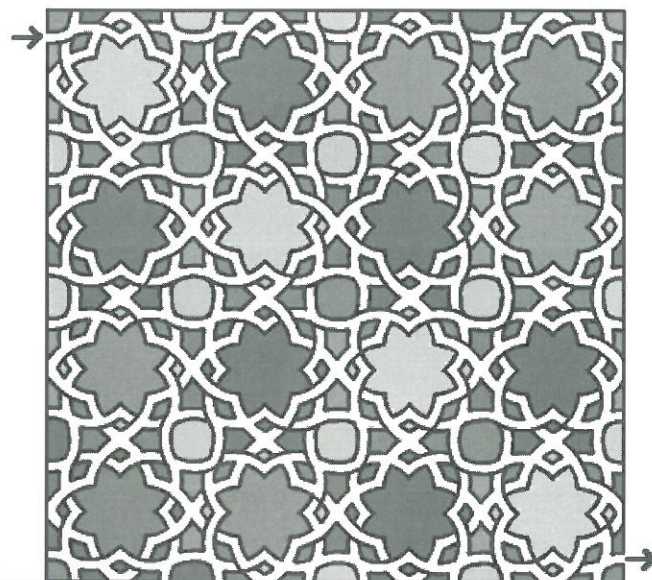
08 이상혁 - 벌써 두 번째 편집후기를 쓸 때가 왔다니 감회가 새롭다. 편집부 친구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편집부 친구들 뿐 만 아니라 지정인들이 얼마 남지 않은 2008년을 잘 마무리하고 2009년에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08 안은지 - 편집부 일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쓴 기사가 그림비로 나온단니까 뭔가 뿌듯한 느낌이 다. 나는 기사에 참여를 못했지만 ㅠ_ㅠ 내가 아는 친구들의 기사를 보면 즐거울 것 같다^^

08 유솔지 - 이번에는 우울증자기진단테스트와 올 겨울 유행하는 패션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무거운 주제가 아닌 흥미로운 주제여서 쉽고 즐겁게 할 수 있었다.

08 전지원 - 모두들 잘지내~ 그리울거예요 ^^

그림비에 대한 열화와 같은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정보학부의 소식지로 앞으로도 꾸준히, 발 벗고 활동하는 비타민편집부 되겠습니다 ^^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고민을 털어버리시라고 미로찾기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Forever Vitamin 편집부.

편집부장 : 07 황인영

편집차장 : 07 허지영

편집부원 : 07 김남식, 이다나, 윤예림, 박동준, 박승호, 장한별, 정지환, 최현지

새내기 기자단 : 08 김영상, 김솔, 안은지, 유솔지, 이인규, 이상혁, 임소영,

이슬, 심리나, 신현희, 장수진, 전지원, 하늘빛



발행일 : 2008년 12월 15일

발행처 : 지식정보학부 학생회

발행인 : 07 황인영

성공이란 그가 인생에서 도달한 지위가 아니라,
그가 성공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극복한
장애물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다.

지식정보학부
VITAMIN편집부